

전주 신덕마을 “차량 소음에 왕짜증”

주민들, 호남로변 일대부근 방음벽 설치 요구 나서

전주시 호남로변 인근 신덕마을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 호남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연일 오고가는 자동차 소리가 집집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크게 들려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에 과속으로 질주하는 일부 차량의 굉음때문에 잠에서 깰 정도라는데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더욱이 이러한 소음공해는 닭 등 주민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4일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신덕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신덕마을 인근 호남로는 전주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난 2008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개설했다.

개설 당시에는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아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자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급기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

했다.

한 주민은 “개설 당시 익산청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고 했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주민들이 모두 연로해 방음벽 설치 건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호남로는 양방향 4차선도로로 제한속도 90km이며, 우회도로 특성상 대형차량 및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증가해 소음 공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도로가 마을보다 높게 개설돼 주간보다는 주로 새벽시간대에 차량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 받는 일이 잦아 생활패턴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하루 종일 무기력한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주민들은 호남로변 126-1번지 일대(119-1도, 산118-1도, 124-1도) 부근에 방음벽 약 190m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덕마을 이장은 “급기야 소음공해는 주민들이 키우고 있는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등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새해 첫 현충탑 참배

전북병무청은 4일 첫 공식행사로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을 하고 참배하고 있다. 이날 김용학 전북병무청장을 비롯해 각 과장 등 20여명의 직원들은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영령을 기렸다.

를 끼치고 있다”며 “신덕마을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은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시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게 이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해당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안에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 입회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 법적 허용치(주간 65db 이상, 야간 55db 이상) 초과시 방음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 국가대표 인문학 도시로 만든다

강좌·콘서트·재능기부 운동 등 프로그램 발굴키로

전주시가 2017년 정유년 새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전주만의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대표 인문도시 만들기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문주년을 선포하고, 10월에는 인문도시로 지정된 전국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된 ‘온·다라 인문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시는 올 한해도 시민들이 1년 내내 생활 속에서 책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간 추진해온 ‘전주인문학365’을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전주인문학365’을 통해 각 권역별 평생학습기관들과 연계한 인문강좌 및 인문학콘서트, 인문학 재능기부 운동 등 인문학으로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만의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발굴,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는 인성중심의 전주

인문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인문학 관련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추진방향 재정립을 위한 ‘전주시 인문학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는 발전계획에 따라 인문도시 전주 만들기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인문학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시는 65개 인문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인문학 담당자들과 ‘전주인문학365’ 네트워크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도시 전역에 시민의 자율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주인문학365’ 학습마당도 구축했다.

또, 전주인문학365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활용하는 등 인문도시 전주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시는 지난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문주년을 선포하고, ‘오방색 인문학을 열다’를 주제로 한

제1회 전주시인문주간 행사도 운영했다. 10월에는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온·다라 인문학연구단이 교육부 인문주간을 맞아 ‘인문학, 미래의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인문학 중·장기 발전계획 대토론회를 상대하게 열고 인문강좌 및 인문학콘서트 등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는 ‘전주인문학365’를 통해 열린시민강좌 등 일상인문학과 인문학기부 및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나눔인문학 등을 운영하고, 전주대학교 온·다라 인문학연구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인 ‘온·다라 인문학’도 전개해왔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강좌 및 인문학콘서트 기회를 제공하는 3차년도 온·다라 인문학 사업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가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전주만의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한 생활재활교사 징역 8개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던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북 남원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빵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는 등 장애인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원 ‘평화의 집’은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지도 명목으로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하다가 적발됐다.

/김민근 기자

재난긴급신고 119로 통일

전북소방본부가 2017년 맞아 각종 제도와 법령을 수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쉽고 빠르진 긴급신고도를 위해 신고접수를 재난 119, 범죄 112로 통일하고 비긴급 민원 상담 전화는 110번으로 통합했다.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해 일반주택에 이어 고층건물의 화

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6층 이상의 건축물에도 무조건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시켰다.

이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확대해서 운영한다. 소방관 채용방식과 연령 역시 크게 바뀐다.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던 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적용되고, 소방안전교육사 역시 응시자격이 확대 되고 3차까지 진행됐던 기존의 방식에서 2차로 간소화 시켰다.

/김민근 기자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티티 상가 분양 돌입

대방건설은 전북혁신도시 4-1블록에 공급될 예정인 ‘대방디엠티티’ 상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4-1블록에 공급될 예정인 대방디엠티티는 지하5층~지상 45층 6개동으로, 아파트 494세대, 오피스텔 1144실로 구성돼 있다.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초대형 복합주거단지조성되는 대방디엠티티는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방디엠티티의 주거 입지에 위치한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의 인기를 통해 이미 인정을 받은바 있다.

만성초교, 온빛초교, 온빛중학교, 양현고등학교 등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기차역 수변공원 및 단지인근 근린공원 등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서전주(2)와 가깝고 효자로 확장 및 혁신로, 정여립로 개통을 통해 전주시

내로 이어지는 교통편도 편리하다. 또한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완주군청이 10km이내에 위치해 기존 시가지와 접근성 또한 우수하여 교통망 이용이 수월하다는 전망이다.

대방디엠티티 상가의 경우 총 1638세대 초대형 단지내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를 원하는 단지 자체내 고객들의 수요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혁신도시 핵심 입지에 위치한 스트리트 메인 상가로, 중심상업지구 유동인구와 주변 1만 세대 배후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2개 공공기관 및 법조타운이 몰려있어 종사자 수요 또한 풍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영화관도 입점할 예정이다. 영화관의 경우 2층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1층 상가로 유도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재 기자

불법 음란물 사이트 부당 수익 챙긴 20대 운영자 검거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4억원에 가까운 부당 수익을 올린 20대 운영자가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한 K씨(20,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5년부터 미국과 중국에 서버를 두고 6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성인 동영상을 32만개를 업로드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일일 평균 18만명 이

상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K씨는 높은 방문자수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로 부터 거액의 광고비용을 받고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평균 광고금액은 최소 100만원 부터 시작을 했으며, 이러한 광고비용을 통해 3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